


2011 도정백서

제1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제1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1. 투자유치 총력 추진
 2.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3.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4.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 

제1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1. 투자유치 총력 추진

1-1. 기업 2,000개 유치 총력추진 기반 강화

우리 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잘사는 전남 실현을 위해 2004년부터 기업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그동안의 기업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기업 2,000개 유치,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 및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1년도 한해 동안 388개 기업 7조 9천 9백여원의 투자유치와 1만 6천 9백여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1년 2월에는 도와 시군이 「기업 2,000개 유치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 목표와 추진실적을 수시 점검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도·시군 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워크숍도 연중 3회 개최하였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공장입지를 적기 적소에 제공하기 위해 도내 개별 입지 221개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업투자 정보를 발굴하여 유치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투자유치 정보은행제를 2011. 5월부터 시행하는 등 전남의 투자유치 활동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추진
부서

기업유치과 과 장 김연태, 유치총괄팀장 정상동, 담당자 박석현, 나영수, 정무혁, 김형호

1-2. 민간차원의 투자유치 지원

가. 투자유치협의회 및 투자유치전문위원회 운영

투자유치와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 투자유치 협의회(위원장 행정부지사) 회의를 년 6회 개최하였다. '11. 3월에는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수도권 이전기업 16개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계획 심의 등 연도 중 기업유치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협의회를 통해 수시 심의하였으며, 투자유치 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 발굴·제안을 위해 구성된 전남정책위원회의 투자유치전문위원회(위원장 박성수 교수)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다.

나.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 52명을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분야별 자문관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활동적인 투자유치 자문관들과 공동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다. 투자유치보좌관 운영

경제전문가인 민간기업의 중견간부를 「투자유치보좌관」으로 위촉(금융감독원 1명, 삼성전자 1명)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전략 및 경영마인드를 공직사회에 파급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국내외 경제동향기업 투자 정보 수집, 금융(PF) 지원, 인적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추진
부서

기업유치과 과 장 김연태, 유치총괄팀장 정상동, 담당자 박석현, 나영수, 정무혁, 김형호

1-3. 투자기업 지원 및 전남 투자여건 홍보강화

가. 투자기업 공동지원협의회 합동상담회 운영

전남에 투자를 결정한 투자협약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조기 투자 실현을 위해 2009. 6월 전국 최초로 투자기업 공동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투자기업 합동 상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다.

투자기업 공동지원협의회는 지역금융권인 광주은행, 농협, 기업산업신한은행 등과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라남도교육청 및 용역지원단체인 전남건축사협회 등 17개 기관단체 22명의 실무팀장으로 구성되어, 기업투자 와 관련한 각종 금융여신, 신용보증, 우수기능인력 알선, 정책자금안내, 건축법무부동산 등 각종 용역 사항을 상담 지원해오고 있다.

2011년에는 2회에 걸쳐 93개 기업이 투자기업 공동지원협의회의 합동 상담회에 참여하여 271건(금융지원 78, 신용보증 48, 정책자금 56, 인력 채용 46, 기타 용역분야 43)의 고충사항을 상담 지원하였다.

나. 투자기업 고용지원협의회 운영

2011년 3월에는 도내 투자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투자기업별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기업의 인력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기업 고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투자기업 고용지원협의회는 광주전남의 구인구직 관련기관 36개 기관 3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라남도, 도 교육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 내 각 고용센터, 상공회의소, 이공계 대학 취업센터 등이 참여하여 각 기관별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상하반기 2회를 추진하였으며, 75개 기업에 대한 고용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각 기업별 채용계획에 대한 합동 모집 공고 및

기관별 취업알선 등을 통해 34개 기업에 184명의 인력채용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과 안정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와 시군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전국 시군구 지자체중 상위 15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기업유치 서비스 만족도에서도 내 6개 자치단체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다.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우리 전남은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 전국 최고의 일조량과 풍부한 해상풍력자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R&D센터(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내 7개의 연구센터, 전라남도테크노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산업용지 등 기업 투자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최적지 전남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2011년에는 아리랑 TV를 통한 해외 홍보 광고와 국내 뉴스전문채널인 YTN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1 지역발전 주간행사'에서 우리 전남은 한옥모형의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였는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전남의 녹색산업 여건과, 신재생에너지, 해양관광 등 주요 전략산업과 F1,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중점 소개하였다.

'지역발전 주간행사'는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국내외 기업인과 일반 시민이 직접 한자리에서 각 시도의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및 관광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해외 투자기업 14개 기업이 전남의 홍보관을 직접 찾아와 밀도 있는 투자 상담을 하는 진행하는 등 전남의 투자매력과 가능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추진
부서

기업유치과 과 장 김연태, 유치총괄팀장 정상동, 담당자 박석현, 나영수, 정무혁, 김형호

2.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2-1. 전략적인 투자유치 추진

전남의 여건과 맞는 산업분야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부품소재산업, 저탄소녹색산업, 친환경 농수축산업과 연계한 바이오식품산업, 레저서비스 산업 등을 전남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1년 5월에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연관기업을 유치하고자 서울 현지에서 투자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수도권 산업단지내 잠재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산업현장에 초청하는 등 SOC확충 및 지역의 비교 우위자원과 관련한 투자의 최적지로서의 강점을 적극 부각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민선 3기 이후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발굴한 투자유치 대상기업의 투자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기업별 사후관리 전담자(PM)를 지정하여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행정지원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도 264개 기업에 약 8조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국내기업은 소규모 투자설명회 및 개별IR 등 전략적 유치활동을 통해 252개 기업과 약 6조 5천억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외투자설명회 및 국내 초청 현장설명회로 12개 기업과 약 1조 5천억원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다.

분야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가. 친환경 농수산물식품산업 기업 유치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의 중심지로서 친환경 농수축산물 가공유통업체, 기능성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주)

가온에프에스 등 75개 기업과 5,887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 전자 및 기계부품산업 기업 유치

2011. 4월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된 영광군을 중심으로 한 레오모터스, 에코넥스 등 전기자동차 생산기업과 전기전자, 기계 부품관련 기업 등 47개 기업 6,953억원의 투자협약 성과를 거두었다.

다. 석유화학 및 신소재산업 기업 유치

또한 여수석유화학산단을 중심으로 GS칼텍스주식회사와 BASF 등 정밀 화학 및 신소재분야에서 27개 기업과 3조 9,896억원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통해 지역산업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라. 환경, 신재생에너지, 의약산업 등 관련기업 유치

그밖에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3개 기업 2,500억원, 의약분야 7개 기업 1,085억원, 관광레저산업 16개 기업 4,437억원 등 저탄소 녹색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추진
부서

기업유치과 과 장 김연태, 유치총괄팀장 정상동, 제조업유치팀장 윤석근,
레저산업팀장 주상욱, 담당자 박석현, 김종현, 이행권

2-2.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

가. 신재생에너지 및 생물의약품분야 투자유치 도지사 유럽 순방

2011. 4. 3. ~ 4. 10일까지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하여 세계적인 풍력 기업인 Vestas와 SSB W/S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북아 생물의약품 및 백신전문단지 육성을 위한 프라운호퍼사와의 MOA를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정밀화학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Bard Engineering, REpower, Voith Hydro, BASF 등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중 BASF사와는 6월중 MDI(폴리우레탄폼) 생산시설 확대와 관련한 800억원의 증액투자 및 11월중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858억원의 신규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나. 홍콩 실무 IR 활동

2011. 4. 26. ~ 4. 28일까지 장강실업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장강실업에서는 전남의 섬개발·리조트·마리나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한편 세계적인 부동산박람회 주관사인 Reed MIDEM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남도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또한 2011. 11. 14. ~ 11. 17일 기간 중 홍콩부동산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 참가기업 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남의 투자여건을 적극 홍보하기도 하였다.

다. 중국 상해 실무 IR 활동

2011. 5. 24. ~ 5. 27일까지 중국 상해에 소재한 종이태리 기업가협회, 중방치업유한공사 등 잠재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전남의 다도해와 연계한 섬개발, 리조트, 마리나 산업 투자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중방치업유한공사의 경우 고급빌라 개발업체와 연계한 투자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라. 일본 실무 IR 활동

2011. 6. 1. ~ 6. 4일까지 도쿄와 오사카지역 7개사를 방문하여 ZEON Corp.(도쿄, 화학), NRS Corp.(도쿄, 물류) 등 잠재투자기업 2개사를 발굴하는 한편 교포기업인(3인)을 대상으로 전남의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향후 일본기업의 국내투자와 관련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일본 대지진이후 안전한 먹거리 및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일본 식품기업 및 제조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2011. 12. 11. ~ 12. 16일까지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국내 최대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지역인 전남의 우수한 투자여건과 여수석유화학산단 및 포스코 등을 기반으로 한 원활한 기초 원자재 수급 여건 등을 집중 홍보하였다.

마.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도내에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고 있는 애로·건의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도내에 투자하고 있는 50만불이상 60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언하거나 관련 부서를 통한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애로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 11월 간부공무원 담당제 실시로 11개 업체 13건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처리하였다.

바. 외국인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IK(KOTRA)의 On-Line을 활용, 우리 도의 최신 투자환경과 투자정보를 수시 업데이트 제공하여 국내외 기업인이 온라인망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정보 수집과 통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상해와 일본 오사카, 미국 뉴욕에 “전라남도 해외 통상사무소”를 운영하여 해외 투자유치 및 통상 교류활동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투자정보 입수 및 교환을 통한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 2011 외국인 투자유치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2011년에는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충·발굴처리 실적과 알버 말, BASF, 대산MMA 등 고도·특허기술 보유 7개 기업 외자유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2개소, 여수경도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등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가 2011. 11. 3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2011 외국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추진
부서

기업유치과 과 장 김연태, 외자유치팀장 안기홍, 담당자 노일환, 김병성, 서명섭, 이수정

2-3.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

가. 5GW 풍력프로젝트 사업 추진

2008.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및 2009. 5월 5+2(호남)광역경제권 개발전략 발표에 따른 서남해안 풍력사업 허브구축 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전라남도에서 서남해안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토대로 대규모(5GW) 내수시장 창출 프로젝트로 기획 추진하게 되었다. 풍력프로젝트는 전남 서남부 도서·해안·해상지역에 5GW 발전단지과 2,314천㎡(70만평)의 설비전용산단 및 R&D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대 효과로는 고용 25천명, 연간지방세수 641억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1. 4월까지 4차 투자협약(총 49개 기업, 16조 3천억원)을 체결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1. 8월 풍력발전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포스코파워 등 4개 기업 및 영광, 신안 등 해당 5개 군과 함께 민관합동 ‘전남 5GW 풍력발전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풍력터빈 및 부품기업 유치, 해상 본타당성 용역, 육상 풍황계측지 경제성조사, 발전사업 SPC 설립 및 각종 민원,

인허가 등 프로젝트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2. 2월, 5GW풍력프로젝트 사업지를 기존 도내 5개 군에서 22개 전시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도시군 풍력발전사업 추진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난개발 방지와 사업육성을 위한 풍력발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5GW풍력프로젝트는 2012년 말에 육상 200MW 규모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해상 시범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에 건설될 예정이고 육해상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본 사업(4.5GW)을 확대 진행할 것이다.

추진
부서

투자개발과 과 장 김범수, 5GW풍력산업유치팀장 박재완, 담당자 배용석, 최준기, 김형균

나.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구체화 실현

대상 지역이 목포·무안·신안 및 영암·해남·진도 일부지역에 이르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시행이 2008. 9월 확정됨에 따라 2008. 12월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마치고 서남권 신발전종합계획 및 종합발전구역 지정고시가 되었다. 구체적인 사업실현을 위하여 2009년부터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 결과 민간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춘 발전촉진지구 6개지구와 타법에 의해 실시계획을 진행한 지구로써 투자유인이 필요한 투자촉진지구 2개지구 등 총 8개지구에 대해 2010년 12월 정부에 지정 신청하여 2011년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2012년에는 중앙도시계획심의 를 받아 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서남권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서남권 신발전 지역에 2020년까지 인구 60만명 규모의 자족형 중핵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추진
부서

투자개발과 과 장 김범수, 중남부권팀장 김기수, 담당자 김동진, 박대형, 심정식

다. 관광개발프로젝트 투자유치 추진

전남의 풍부한 섬·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대규모 리조트, 복합휴양타운 등 관광개발 민자유치를 위하여 사업비 1,620백만원을 투입하여 투자후보지 10개소에 대한 컨셉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수립 등 관광개발프로젝트 상품화 용역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국 해항그룹, 이랜드 그룹, 대명그룹 등 국내외 유명 타겟 기업을 초청하여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15회 개최하였으며, 투자가능성이 높은 외국기업을 발굴·유치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합동으로 미국 마이애미, 캐나다 벤쿠버 등을 방문하여 해외 투자유치 IR활동을 전개하였다.

추진
부서

투자개발과 과 장 김범수, 북부권팀장 박화현, 담당자 진미선, 최근영, 박성훈

라. 전남조선타운 조성사업

신안군 압해면과 고흥군 도양읍 일원에 총 면적 1,611만㎡, 투자비 2조 5,271억원 규모의 조선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7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20여개 투자참여 업체와 투자협약을 실현 하였고, 2008년에는 신안과 고흥에 개발사업 추진 전담 법인(SPC)이 설립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과 실시계획 승인 등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토지보상과 공사착수를 진행 할 계획이다. 더불어 그에 따른 직접고용 4만명과 생산유발 8조 2천억원의 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추진
부서

투자개발과 과 장 김범수, 조선해양산업유치팀장 이평근, 담당자 김영국, 박성우

3.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3-1.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여건 조성

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배경

낙후된 우리 지역 여건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2003년부터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를 구상하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 개발예정지인 영암호 및 금호호 일대는 서해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친수공간 지역이면서 연평균 15°C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주변에 산재한 2천여 개의 다양한 섬들, 6천4백여km의 리아스식 해안선 등 아름다운 자연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와의 최 근거리로 교역 및 관광 등에 유리한 경제적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동북아시아 관광레저 허브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목포시 면적 정도 크기의 해남·영암 일대 간척지 약 49km²(1,482만평)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거 2005년 8월 25일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고 2006년부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개발 예정지내 간척지 양도양수 추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예정지는 전체면적 49km² 중 간척지가 41.6km²로 전체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간척지 양도·양수의 원활한 추진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지구를 제외하고 삼포지구 4.20km², 삼호지구 8.44km², 구성지구15.94km²

등 총 28.58km²의 간척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기업도시개발부지로 활용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삼호지구는 2009년 10월에, 구성지구 2010년 1월, 삼포지구는 2010년 10월에 각각 개발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되었고 2010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삼호·구성·삼포지구에 대한 간척지 양도·양수 협약이 각각 체결되었다.

이후 삼포지구의 경우에는 1단계로 F1경주장 부지 1.85km²에 대하여 2010년 8월 감정평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7월 22일 m²당 15,500원으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10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총 287억원에 인수하게 되었다.

구성지구는 2010년 9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같은 해 12월 m²당 6,400원에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체 예상평가액보다 낮게 나온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를 요구하였다. 이에 시행사는 2011년 7월 간척지 평가대금 1,020억원중 계약금으로 10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양도·양수 계약체결을 요구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으로 대응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간척지 문제로 기업도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조정을 요청하였고, 2011년 12월 15일 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를 통해 민사조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관련기관이 합의를 하였다. 같은 해 12월 26일 민사조정 최종 심리에서 '2010년 12월 당초 평가한 금액대로 양도·양수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간척지 감정가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삼호지구는 2010년 12월 감정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와 평가조건 및 방법의 차이와 평가기관의 납품서 제출 지연 등의 이유로 2011년 7월 평가가 중단된 이후 감정평가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안상현,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개발지원담당 안병옥, 담당자 이금하, 김재인, 박창민

3-2.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추진

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실시계획 승인 추진

서남해안레저(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삼호지구는 Wealthy City(아시아의 베네치아를 꿈꾸는 수려한 수변공간과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의 고품격 풍요 도시)로 허브테마단지, 마리나, 리조트단지, 골프마을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성지구는 Joyful City(다양한 레저활동과 흥미롭고 신나는 여가 체험으로 잊지 못할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도시)로 테마파크, 해양스포츠단지, 남도음식문화촌, 골프빌리지, 비즈니스센터, 시네마타운, 메디컬센터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주) 등 골프장 운영 전문업체로 구성된 썬카운티(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동산지구는 Vital City(청정 자연환경 속의 휴식으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회복과 활력을 주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워터파크, 마리나클럽, 식물원, 골프아카데미, 재활의료센터, 연수원 등을 개발할 계획이고, 세계인의 스피드 축제인 「F1 Korean Grand Prix」가 열리는 삼포지구는 Dynamic City(젊음의 에너지와 역동성을 느끼게 하는 도시)로 F1경주장, 카트장, 모터산업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삼호·구성·삼포지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0월 8일과 2010년 1월 13일, 2010년 10월 21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부동산지구의 경우에는 골프장 과잉공급 및 간척지 가격 등을 문제 삼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발계획을 재검증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청와대 조정회의 등을 개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발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실시(2011. 4월~12월)하였으나, 사업 시행여부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 분석인

편익/비용만을 실시하여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B/C 1.0이하)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개발 문제가 장기화 될 전망이 높아졌다.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삼호·구성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 2010년 7월과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년 11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마지막으로 <표 2-1>와 같이 중앙 15개 부처 협의를 완료하였다. 삼호지구는 농어촌공사와 간척지 감정평가에 대한 이견으로 구성지구는 간척지 감정평가는 완료되었으나 잔대금 이행 보증 관계로 최종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 실시계획 승인 관련 중앙부처 협의 및 보완 주요내용

구분	삼호지구	구성지구	비고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역수질 오염 부하량 최소화 · 해역이용협의 이행 ·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인구(1.8인→2.5인) · 국지도49호선 확장 및 동측 진입도로 개설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방 목진지 및 검문소 이설 · 세부계획 관할부대와 재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방 목진지 및 검문소 이설 ·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수립 	
농식품부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암호 수질보전대책 보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완충녹지 및 원형보전지역 최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 전용 협의 · 양도양수 협약에 따라 평가액 반영 · 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 통보 	
문체부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 ·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 지정문화재 보존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 지정문화재 보존방안 마련 	
행안부 (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방을 위한 정량적분석 실시 · 도시방제성능 목표 강우량 비교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 우수 및 토사 유출저감대책 수립 · 낙뢰방지대책 수립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암호, 금호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 철새 등 생태계 보호대책 수립 · 대기,소음, 분진저감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암호, 금호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 철새 등 생태계 보호대책 수립 · 유보지 보존대책 수립 	
지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전압 승압 검토 · 자연채광 도입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방안 제시 · 에너지 및 가산 절감을 검토 	
교과부 (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교내에 유치원 부지 확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공원을 학교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구분	삼호지구	구성지구	비고
법무부	· 의견없음	· 의견없음	
보복부	· 의견없음	· 의견없음	
노동부	· 의견없음	· 의견없음	
기재부	· 의견없음	· 의견없음	
통일부	· 의견없음	· 의견없음	
외교부	· 의견없음	· 의견없음	
여성부	· 의견없음	· 의견없음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안상현, 개발계획담당 최인규, 개발지원담당 안병욱,
담당자 서영배, 김광호, 박창민

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이행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계획단계에서의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여 환경 친화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2006년 6월 착수하여 2008년 8월에 완료하였다.

이어 삼호 및 구성지구는 2010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 환경부로 제출하여 2010년 12월에 협의 완료하였으며 2011년 1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제출하여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의 최소화 방안과 대기·소음 저감방안, 생태계 보전방안, 영암호·금호호 수질개선대책 등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환경보존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삼호지구는 2011. 5월에 구성지구는 2011년 11월에 각각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부동지구와 삼포지구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안상현, 개발계획담당 최인규, 개발지원담당 안병욱, 담당자 박우주, 박창민

다. 안정적인 지가관리 및 불법행위 사전 차단 추진

안정적인 지가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전남도에서 2004년 8월 11일 1차로 해남군 산이면 전 지역과 화원면 청용·금평·영호·성산리 지역 105.86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업예정 인근 지역인 해남군 해남읍, 화산·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면 일원 457.65km²와 영암군 삼호읍, 미암·서호면 189.1km²까지 2차로 확대 지정하여 총 면적 708.77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과다 지정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거의 없고, 지가 또한 안정적으로 조사되어 우리 도에서는 10회에 걸쳐 해제를 건의한 결과 2009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영암, 해남군 일원 646.75km²를 해제하였으며, 같은 해 5월 4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중 개발 예정지 및 주변을 제외한 해남군 11개 법정리 62.02km²를 해제하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있던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부동리,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금호리 6개 법정리에 걸쳐 지정되었던 43.84km²에 대해서도 2011년 8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 하였다.

또한 기업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 불법 토지형질변경, 수목식재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남군과 영암군에서는 1차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간 기업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하였으나, 개발계획 미승인 등으로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간을 2차에 걸쳐 연장 고시하여 월 1회 이상 도, 해남군, 영암군, 시행사가 합동으로 위법행위 등을 점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거주하여온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해 주택 및 축사 등의 수선행위와 소형관정 개발 등을 통한 영농경작행위 등은 해당 군에서 내부지침을 마련

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8일 삼호지구 개발계획 승인, 2010년 1월 13일 구성지구 개발계획 승인 후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였으나 기업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안상현, 보상지원담당 정종태, 담당자 조병섭, 조창문, 서회정

라. 앞으로 추진방향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구성지구는 2012년 상반기까지, 삼호지구는 2012년 하반기까지 최종 승인을 거쳐 1단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삼포지구는 F1경주장이 조성된 1단계 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설계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2013년 상반기 중에 중앙부처의 승인을 득해 추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지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재협의를 통하여 개발계획이 빠른 시일 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의 개발이 완료되면 전남은 동아시아 최대의 관광레저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가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서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안상현, 개발계획담당 최인규, 개발지원담당 안병옥,
담당자 서영배, 김광호, 김재인, 박창민

3-3.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기반시설 확충

가. 국지도 49호선 확장

기업도시 건설에 따라 향후 잠재 교통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 국지

도 49호선에 대하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도로 높이를 2m로 높이고, 입체교차로 2개소를 설치하고자 지난 2010년 4월 국토해양부에 1,842억원에서 488억원이 증가된 2,330억원으로 사업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11년 5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6차선이 필요하다는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오에 따라 기재부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

나. 군도 21호선 지방도 승격

군도 21호선은 기업도시 구성지구 내의 주 간선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아 확장이 필요한 구간이나 관리청인 해남군에서는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2010년 10월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하여 줄 것을 우리 도 도로교통과로 건의하였다.

우리 도 도로교통과에서는 개발계획이 승인된 단지내 도로는 승격과 지방비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사업 타당성 확보와 구성지구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2012년 상반기 1단계 공사 실시에 맞추어 지방도 승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도 승격 방안으로는 군도 21호선 5.9km를 지방도 806호선으로 승격 지정하고 지방도 806호선 중 금호호를 횡단하는 2.8km는 폐지하고 기 개설구간 1.8km는 군도 21호선으로 변경하는 등 총 500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다. 구성지구 대불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현재 영암 대불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은 하루에 56,000m³로 실제 1일 유입·처리량은 33,000m³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성지구 초기 1단계 사업 구역 하수발생량 하루 2,400m³ 정도는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난 2011년 6월, 운영비·원인자부담금 40억원 납부와 장학기금 1억원 지원 등을 조건으로 영암군, 해남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구성지구 사업 착공 후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라. 기업도시 동측진입도로 개설 추진

정주인구 48천명(19천세대)과 연간 500만 여명의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추가 개설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기업도시특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기 개설된 F1진입도로를 기업도시 진입도로로 간주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누락되어왔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하고 설득한 결과 2011. 11. 8. 국회 상임위(문광위)에서 기본조사 용역비 3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2011. 11월에 2012년도 상반기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

동측진입도로 구간은 목포·광양간고속도로(국도2호선)~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지방도 806호선)이며, 총 길이는 10.9km, 4차로이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7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안상현, 개발계획담당 최인규, 담당자 서영배

3-4.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추진

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브랜드 개발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시장성 확보 및 중장기 마케팅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의 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브랜드 개발사업은 2010년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적정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으며, 2011년도에는 적정사업비 7천만원을 확보하여 브랜드 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사업추진을 위해 3월 15일 4개지구 시행사(SPC) 관계자 회의를 통해 브랜드 개발 사업의 필요성 및 개발방향, 사후 활용 등 사전 협의를 거쳐 3월 23일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브랜드 개발 보조사업자를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결정하고 과업협의를 거쳐 4월 7일 전라남도-한국디자인진흥원간에 브랜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분석, 전략수립, 네이밍 개발, 기본시스템 개발, 관리 매뉴얼 완성의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나 기본시스템의 디자인과 슬로건 결정에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어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브랜드 네이밍은 10개의 명칭을 개발하고 선호도 조사 및 정책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솔라시도」로 결정되었고 2011년 8월 9일자로 특허청에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홍보

2011년까지 기업도시의 개발사업이 삼포지구의 F1경주장 건설을 제외하고는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는 대규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케이블 TV 영상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의 대국민 광고사업을 실시하였다.

광고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YTN 및 MBN을 통한 영상광고와 인터넷 뉴스 제공 사이트인 '뉴시스'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KTX 객실 모니터를 통한 영상광고, 서울 광화문 옥외전광판 동영상 광고, 용산역 대합실 와이드 광고, 전남도내 13개 전광판 영상광고를 실시하면서 총사업비 1억 6천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대규모 행사장 이벤트 홍보를 위해서 국내행사로 4월에 도민 체육대회(나주)와 9월에 명량대첩 축제(해남), 문체부 주관 지역발전주간 행사(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현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활동 전개하였으며, 국제행사로 3월 간느 국제 부동산박람회와 11월 홍콩 부동산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 운영을 통한 개발사업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안상현,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담당자 김형찬

다. 영상체험홍보관 건립 추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사업의 이해증진 및 투자유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상체험홍보관 건립사업은 2010년 3월 17일 전라남도과 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서남해안레저(주), 썬카운티(주)가 공동출자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건립 규모로는 부지 6,600㎡, 건축연면적 2,000㎡(2층)이며 사업비는 65억원으로 전라남도에서 20억(설계비 5억원 포함), 개발 전담법인이 45억을 분담기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홍보관 건립부지가 현재 공유수면인 관계로 우선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2010년 3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공유수면 우선 사용 승낙을 신청하였으나 간척지 양도·양수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매각 및 우선 사용승낙에 부정적이어서 우리 도에서는 공유수면 양도양수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선 2010년 9월에 건축 및 전시 시설 설계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공모결과 (주)광주공간건축과 시공테크(주) 컨소시엄이 설계업체로 선정된 후 2011년 1월 10일 기본 및 실시 설계 도서를 납품하였다.

홍보관 분담금 납입은 2011년 3월 4일 구성지구에서 31억 6천 8백만 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우리 도가 2012년 2월 이전에 분담금 15억원을 납입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서남해안레저(주) 및 썬카운티(주)가 분담해야할 13억 32백만원은 부동산지구 개발계획 승인 등 일정 성과가 나오면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으로 분담금 납입을 미루고 있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안상현, 보상지원담당 정종태, 담당자 조병섭, 조창문, 서희정

라.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

2005년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시범사업 지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2006년 10월 투자유치 컨설팅협약을 체결한 후 투자 가능 기업을 파악하였으며, 꾸준한 투자기업 발굴 결과 2008년에는 트리스 그룹과 카지노·골프장·컨벤션 센터·럭셔리빌리지 사업에 투자하는 골자로 하는 MOA를 체결하였고, 국내기업 성호건설과 호텔 건립에 투자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2010년에는 엠베서더 호텔그룹이 호텔 및 부대시설에 700억원을 투자하는 것과 SK D&D에서 단지형 시니어 빌리지 건설 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MOU 체결을 하였으나 기업도시 개발사업 착공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실질적인 투자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1년에도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금융 투자사 F.I.B의 호텔, 가족 단위 복합리조트, 컨벤션 시설에 대한 한국 투자를 위해 한국대표부를 면담하여 투자 설명하고, 구성지구 주요 출자기업인 (주)한양을 창구로 하여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기업인 MGM과 접촉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투자유치의 성과를 거양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세계 부동산 개발 박람회인 “홍콩 부동산박람회”와 프랑스 “간느 부동산박람회”에 2011년 3월과 11월에 각각 참가하여 세계 유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홍보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기회를 가졌으며, 국내에서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역발전주간행사를 통해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홍보하고 투자가치를 널리 알리는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하였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안상현,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개발지원담당 안병욱,
담당자 김형찬, 정병현, 김재인

4.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4-1. F1 대회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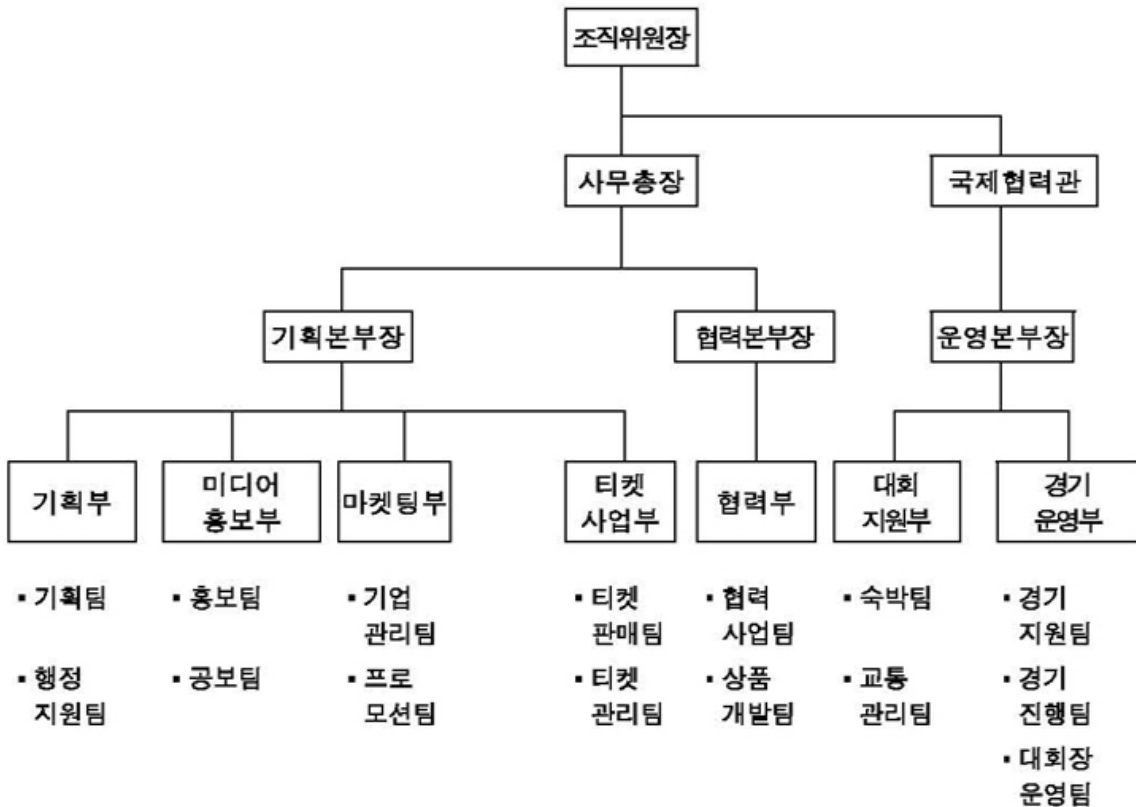
가. 조직개편

(1) F1조직위원회 사무처 개편

2009년 12월,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준비주체인 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으며, 2010년 2월 F1조직위원회 사무처를 구성하였다.

2010 F1대회를 민간기업 체제의 KAVO 주도하에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마케팅 부진과 기관간 역할 분담체계 미흡 등 민간주도 방식의 한계점이 드러남에 따라, 2011 F1대회는 F1대회조직위원회 주도로 대회운영시스템을 변경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조직위원회 사무처는 1사무총장 3본부 7부 16팀 60명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대회관계자 숙박·수송을 지원하고 문화행사 등 이벤트 개최 및 지원, 관람객 숙박·교통대책 마련,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문화자원 홍보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2011년 2월 F1대회조직위원회와 KAVO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회운영, 마케팅, 국제협상 등 대회개최 준비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전남도 지원체계 개편

대회운영기업(KAVO)과 조직위원회간 업무협약에 따라 대회운영 전반을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존 3급 국장체제의 F1대회지원본부를 폐지하여 조직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기업도시과에 F1지원담당과 개발지원담당을 신설하여 F1대회 국비확보 및 정부협약, KAVO 및 F1대회조직위원회 행·재정적 지원, 경주장 및 SOC 건설, F1경주장 사후활용 및 모터스포츠산업클러스터 및 삼포지구 2단계개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었다



(3) 전라남도, 조직위, 대회운영기업간 역할분담

전라남도	조직위원회	대회운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 지원 및 협력 • 대회운영기업 KAVO의 지원 및 주주권리 행사 • 경주장 건설지원 • 2단계 개발사업 마스터 플랜, 투자유치 등 •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개최 준비 및 운영 • 홍보 및 대외협력 • 문화행사 등 이벤트 • 관람객 수용대책 (교통·숙박·수송지원) • 수익사업 및 마케팅 프로모션 •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문화 자원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장 건설 및 경주장운영(사후활용)

나. 자원조달

(1) 총사업비 : 6,777억원(2007~2011년)

(단위:억원)

재원	총계	F1경주장 건설	KAVO 출자	개최권	TV중계권	운영비		기반시설
						2010	2011	
총계	6,777	4,425	173	865	295	119	252	648
국비	900	728	-	-	-	-	-	172
도비	3,159	1,507	173	484	148	119	252	476
민자	2,718	2,190		381	147	-		

2006년 한국 F1대회 유치가 확정된 이후 2011년까지 대회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은 약 6,777억원이며, 이는 국비, 도비, 민자로 구성되어 있다. 국비, 도비가 중점 투입된 분야는 공공성이 강한 F1경주장 건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SOC 분야이며, 2010년도 개최비용 381억원은 대회운영기업이 민자로 충당하였다.

(2) 국도비 등 확보

1) 국비

당초 2011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F1대회 관련 예산이 누락되었으나 2011년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F1경주장 건설 사업비 200억원을 2010년 528억원에 이어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예결위를 거쳐 12월 31일 본회의에서 경주장 건설비 200억원 지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2) 도비

F1대회준비와 관련하여 투입된 도비는 경주장 건설비 1,507억원, 대회 운영비 371억원, 진입도로·생활림 등 기반시설 476억원, 2011년도 개최 권료·TV 중계권료 632억원 등 총 3,159억원이며, 특히 대회운영비는 향후 국비확보와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도비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3) 기금

당초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 지원 신청시 200억원의 대회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KAVO와의 조직 통합 및 기능 개편 후 대회장운영, 마케팅, 국제협력 등의 업무가 F1조직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실제 100억원이 추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기준(대회운영비)을 현재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변경 건의하여 2016년까지 192억원 지원될 계획이며, 특히 대회 운영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2011년도에 조기 배분 건의하여 44억원을 확보하였다.

다. 법령개정 등

(1)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개정 추진

F1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09. 10. 9 제정된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체계는 대회의 총괄 추진은 조직위원회가 담당하고 대회관련 수익사업 수행 및 경주장 운영은 대회운영기업(KAVO)이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되어 있다.

금년 대회부터 민간주도의 대회 운영시스템을 조직위원회 주도로 개편·운영함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진주체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입장권 판매, 방송 중계권 사업 등)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F1지원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1. 10. 20. 유선호의원 대표발의로 법률개정안이 제출된 후 국회 국제경기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회운영기업(KAVO)이 보유하고 있는 대회개최권을 조직위원회로 이관 후 법안 심의하도록 보류되어, 2012년 상반기 중 대회개최권 이관과 함께 F1지원법 개정을 추진코자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F1대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대회운영기업(KAVO)에서 조직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고 대회 개최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을 위해 2011. 10. 20. F1지원법과 함께 유선호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개정법률안이 2011. 12. 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12. 30.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F1대회를 안정적으로 지속 개최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토록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F1대회 경기운영 및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경감,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등이다.

앞으로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받아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대회수지개선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3)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조직위원회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2011. 7. 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여 9. 30.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직위원회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에 대해 손비가 인정되어 14억원의 기부금이 접수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와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F1대회지원담당관 최종선, 운영기획담당 고병수, 담당자 임만규, 안재석

4-2. 대회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가. F1경주장 건설

(1) F1 경주장 건설 규모

F1경주장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난전리 일원 간척지 1,853천㎡의 부지에 F1 대회 운영법인(KAVO)이 경주장 건설사업비 약 4,000억원을 조달(자본금 600억원, PF 및 국도비 3,400억원)하여 트랙, 그랜드스탠드, 피트 및 패독, 컨트롤 타워, 팀빌딩, 주차장 등이 2010년 10월에 건설되었다.

(2) F1 경주장 설계

2006년 7월 세계적 F1 서킷 전문설계사인 독일 틸케(Tilke)사에서

경주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경주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06년 9월부터 독일 킬케사와 국내 설계전문업체인 도화종합기술공사, 정림건축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2007년 8월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설계를 완료하였다.

F1경주장은 반시계방향 주행의 5.615km의 트랙, 용도에 따라 2개로 변형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서킷, 1.2km의 직선구간, 최고속도 320km, 그랜드스탠드 16,000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세계 최고수준으로 설계되었으며, 건축물은 처마선을 살린 지붕과 봉수대 모양 등 한국적 전통미와 남도의 정취를 반영(엔트런스빌딩, 그랜드스탠드 등)하여 그 자체로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추진
부서

F1대회지원담당관 최종선, 시설관리담당 조영식, 담당자 김태곤

(3) F1 경주장 및 기업도시 개발계획승인 절차 이행

경주장 건설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2007년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암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득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하였다.

협약과정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개발계획 승인신청 관련 최소면적 기준(660만㎡)에 대한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서법령해석 심의회(2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기업복합도시과) 및 법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건의하여 2009년 9월 29일 동법 시행령 부칙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된 개발구역을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기존 면적기준의 50/100을 개발구역 면적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하였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2009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관련규정상 개발구역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추진이 어려웠으나, 기업도시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2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2010년 4월 8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과, 2010년 10월 4일 기업도시위원회를 거쳐 2010년 10월 21일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추진
부서

기업도시과 과 장 안상현, 개발지원담당 안병욱, 담당자 김재인, 박창민

(4) F1 경주장 건설공사 준공

본격적인 경주장 건설공사 추진에 앞서 2007년 7월 31일 F1경주장 건설공사 안전지원제를 지내고 공사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12월부터 (주)금광기업에서 F1 경주장 토목공사(연약지반개량)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 6월 F1대회운영법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와 SK건설, 금광기업 간에 토목, 건축공사 도급계약(2,438억원)을 체결하고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착수하였다.

2010년 10월 F1 경주대회에 필요한 전체 시설을 완료하였고, 2011년에는 야외화장실 및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1년 9월 30일 최종 준공하였다.

나.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2010년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에는 관람객 20만명(외국인 5만명)과 차량 1일 최대 33,000대가 경주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주장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시급함에 따라 사업비

312억원을 투자하여 2.8km인 지방도 810호선의 기존 2차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2008년부터 추진하여 2010년 10월 준공하였다.

또한, 경주장 진입로를 추가 확보하여 경주장 진출입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사업비 238억원을 투자하여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에서 경주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교차로 2개소 변경공사(평면교차로 → 입체교차로)를 2008년도부터 추진하여 2011년 10월 준공하였다.



F1대회지원담당관 최종선, 시설관리담당 조영식, 담당자 김태곤

4-3. 2011 F1대회 개최성과

가.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요

(1)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요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었으며, 2년 연속 16만여명의 관람객 유치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 F1대회는 2011년 대회의 제 16라운드로서 12개팀 24명의 드라이버가 출전하여 예선전과 결승전을 치렀으며, 대회결과 1위는 세바스찬 베텔(레드불, 독일), 2위는 루이스 해밀턴(맥라렌, 영국), 3위는 마크 웨버(레드불, 호주)가 차지했다.

나.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주요성과

(1) 2년 연속 16만명의 관람객 유치로 F1과 모터스포츠의 국내 정착 가능성 확인

2011 F1대회는 10월 16일(결승) 84,174명, 10월 15일(예선) 64,828명,

10월 14일(연습주행) 11,234명 등 총 160,236명이 관람하여 2년 연속 16만명 이상이 관람하였으며, 해외관광객 9천명과 F1대회 관계자, 팀 스태프 등 총 1만1천명의 외국 방문객이 방문함에 따라 지역이미지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관람객은 전년도(165천명)와 비슷한 수준이나, 유료 관람객은 오히려 20~30% 증가해 전년도 대비 티켓수입이 36%증가하는 등 내실이 훨씬 강화되었다.

(2) ‘가볼만한 대회’ 에서 ‘가보고 싶은 대회’ 로 브랜드 가치상승

공중파 홍보 프로그램과 국내외 언론보도 확대에 따른 대회 붐 조성,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로 국민적 관심 증대와 기업의 참여 증가, 한류 열풍을 활용한 K-POP 콘서트 등 문화콘텐츠 보강, 교통정체와 숙박난 해소, 관람객 편의시설 보강 등으로 F1대회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기업 비즈니스 장으로 본격 활용

2011 F1대회는 포스코와 SK루브리컨츠에서 대회 공식 후원(트랙사이드 광고), 농협·GS칼텍스·부영·삼성 등에서 티켓프로모션을 통한 후원, 기업 부스(17실)를 활용한 VVIP 고객 프로모션 전개 등 기업들의 비즈니스 장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 2010년 대회는 공식후원사 유치 및 기업부스 판매실적 없음

(4) 지역·국가에 대한 인지도 제고

2011 F1대회는 전 세계 188개국에 중계되었으며, 주요국가 시청률은 영국 43.8%, 독일 42.0%, 스페인 39.9%, 이태리 39.3%이고 국내 시청률도 6.1%로 분석되어 우리나라와 전라남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다.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제적 파급효과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개최함으로써 관람객과 레이싱 팀 등 해외 관계자 소비지출과 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한 지출 등 총 1,138.3억원의 직접적인 지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2,249.5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직접 지출 대비 2.0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44.7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845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의 총 경제효과

구 분		합계 (백만원)	경제효과	
			건설투자	소비/운영
직접지출 효과	관람객 소비지출	28,649	-	28,649
	참전 팀 지출	9,921		9,921
	대회준비/운영지출	75,257	52,200	23,057
	소 계	113,827	52,200	61,627
↓				
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224,953	106,187	118,766
	부가가치유발효과	94,473	44,764	49,709
	고용유발효과(명)	2,845	896	1,949

주)건설투자 : 경주장 건설 및 대불산단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 포함
 ※ 2011 F1대회 준비과정 및 개최성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011 F1코리아 그랑프리 백서(F1조직위원회 刊)」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1대회지원담당관 최종선, 운영기획담당 고병수, 담당자 안재석, 김경전

4-4. 경주장 사후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

가. 영암 F1경주장 현황

영암 F1경주장은 2011년말까지 F1대회운영기업인 (주)KAVO의 소유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고,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관련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암 F1경주장은 2010년 관련 건축물과 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별 사용 승인을 득하고, 서킷은 국제기구인 FIA로부터 최상급 등급인 Grade 1을 받아 2010 F1대회를 개최하였으나, F1경주장 부지 양도양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준공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2011년 9월 28일 준공, 동년 10월 5일 체육시설업 등록이 이루어지기까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와 조직위원회 그리고 F1경주장 소유·운영 주체인 (주) KAVO는 2011년 F1경주장 사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국내 모터스포츠 활성화와 F1경주장 사용에 대한 기업 요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내 프로모터와 기업 등에게 직접적인 임대비용 없이 F1경주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 프로모터는 F1경주장에서 국내 유수의 모터스포츠대회를 연중 개최하였고, 기업은 기업 CF 제작, 신차발표회, 자동차 비교 시승회 등의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영암 F1경주장은 F1대회 기간 외에도 상시적으로 운영되었다.

2011년말 우리 도는 F1경주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F1경주장 인수를 결정하고 '11. 11월 감정평가를 거쳐 '11. 12. 15일 경주장 인수를 완료하였다. 이후 경주장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규정 정비에 나서 '11. 12. 23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나. 2011년 F1경주장 활용 현황

우리 도는 F1대회 개최를 계기로 영암 F1경주장을 모터스포츠의 메카와 지역의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F1경주장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고 추진하였다.

(1) 각종 국내외 모터스포츠대회 유치로 F1경주장 임대료 제고

2011년에는 F1대회 외에도 CJ 슈퍼레이스, 한국 DDGT 챔피언십, 넥센 RV 챔피언십, 현대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KMF 코리아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등 국내 유수의 사륜차 및 이륜차 모터스포츠 대회가 영암 F1경주장에서 개최됨으로써 영암 F1경주장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모터스포츠 경주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결과 2011년 영암 F1경주장에서는 F1대회 기간(준비 기간 포함) 21일을 포함하여 총 50일간 17개의 모터스포츠대회가 개최되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F3대회, AFOS, 슈퍼 GT 등 세계적인 모터스포츠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표 2-3〉 2011년 영암 F1경주장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현황

연 번	일 시	기업·프로모터명
1	'11. 4. 16~4. 17	한국 DDGT 챔피언십 1전
2	'11. 4. 23~4. 24	CJ Superace 1전
3	'11. 5. 14~5. 15	한국 DDGT 챔피언십 2전
4	'11. 6. 18~6. 19	넥센 RV 챔피언십 1전
5	'11. 6. 25~6. 26	한국 DDGT 챔피언십 3전
6	'11. 7. 9~7. 10	D-100일 행사
7	'11. 7. 16~7. 17	넥센 RV 챔피언십 2전
8	'11. 7. 23~7. 24	한국 DDGT 챔피언십 4전
9	'11. 8. 7	KMF 코리아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1전
10	'11. 8. 27~8. 28	넥센 RV 챔피언십 3전

연 번	일 시	기업 · 프로모터명
11	'11. 9. 17~9. 18	넥센 RV 챔피언십 4전
12	'11. 9. 24~9. 25	한국 DDGT 챔피언십 5전
13	'11. 9. 30~10.20	F1대회 (준비 기간 포함)
14	'11. 10. 23	KMF 코리아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2전
15	'11. 10. 29~10. 30	넥센 RV 챔피언십 5전
16	'11. 11. 5~11. 6	한국 DDGT 챔피언십 6전
17	'11. 11. 12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4전

(2) 기업 및 동호인 행사 유치를 통한 경주장 활용

영암 경주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터스포츠 경주장으로, 이를 활용하여 변화, 창조, 스피드의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하는 기업들이 영암 경주장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았다. 2011년의 경우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수입자동차회사 등이 F1경주장에서 자동차 비교 시승회, 관련 제품의 테스트, 드라이빙 스쿨, 고객 대상 트랙데이 등을 개최하였고, 삼성화재, 현대자동차, 영화사, 광고사 등이 기업 CF제작, 홍보 카탈로그 제작, 영화 및 광고 제작을 위해 영암 경주장을 활용하였다. 또한 동호인 대상의 동호회 서킷체험, KIC 트랙데이 등이 진행되어 2011년 영암 경주장에서 25건 52일의 기업 및 동호인 행사가 개최되었다.

〈표 2-4〉 2011년 기업 및 동호인 행사 개최 현황

연번	일 시	기 업 명	사용(참여) 내역
1	'11. 2. 19~2. 20	모토쿼드	자동차 및 바이크(60대)
2	'11. 3. 5~3. 6	모토쿼드	자동차 및 바이크(61대)
3	'11. 3. 12	모터사이클연맹	바이크 주행
4	'11. 3. 17	삼성화재	CF 촬영
5	'11. 3. 22	기아자동차	비교시승회 (K7 vs 외국명차)
6	'11. 3. 27	MK DDGT	서킷 라이선스 교육
7	'11. 4. 2~4. 3	모토쿼드	자동차 및 바이크(61대)

연번	일 시	기 업 명	사용(참여) 내역
8	'11. 5. 1	BMW 동호회	F1 서킷 체험주행
9	'11. 5. 27~5. 29	포르쉐	드라이빙 스쿨
10	'11. 6. 4~6. 5	모토쿼드	자동차 및 바이크(69대)
11	'11. 6. 11	포르쉐 동호회	F1 서킷 체험주행
12	'11. 6. 12	동호회	F1 서킷 주행
13	'11. 6. 14	에이치플러스	CF 광고
14	'11. 7. 11	POS	POS 연습주행
15	'11. 7. 27	한국타이어	테스트 주행
16	'11. 8. 7~8. 25	포르쉐	월드로드쇼
17	'11. 8. 21	포르쉐	서킷 체험 주행
18	'11. 9. 1	드림캡처	영화제작 (페이스메이커)
19	'11. 9. 2~9. 3	KIC 트랙데이	KIC 트랙데이
20	'11. 9. 19	탐기어	프로그램 제작
21	'11. 9. 27	마세라티 동호회	트랙데이
22	'11. 9. 29~9. 30	파인아트	화보 촬영
23	'11. 10. 21~22	모토쿼드	고객 대상 트랙데이
24	'11. 11. 19~20	모토쿼드	고객 대상 트랙데이
25	'11. 11. 27	KIC 트랙데이	KIC 트랙데이

다. 향후 경주장 상시 활용 계획

(1) KIC 독자 리그 창설 및 국제대회 유치

영암 경주장을 국내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KIC) 독자리그를 출범하여 국내 최대의 모터스포츠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독자리그는 국내 모터스포츠대회의 정상급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아마추어 선수를 망라한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로 개최하고, 관람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이벤트를 통해 일반

인도 함께하는 모터스포츠 축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AFOS, F3, 슈퍼 GT 등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대회를 우리 도의 부담이 최소화 하는 구조로 유치함으로써 영암 경주장의 상시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경주장 시설 확충을 통해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육성

영암 경주장이 국내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카트장, 안전운전교육장 등 종합적인 모터스포츠 관련 시설을 갖추어 모터스포츠 테마파크로 발전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필요 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의 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터스포츠 대회가 쉽게 TV에 노출되어야 하나, 현재 영암 경주장에는 방송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가능한 범위부터 TV 중계를 위한 상설 케이블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3) 경주장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영암 경주장을 드라이버들의 모터스포츠 경연장에서 일반인들도 모터스포츠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모터스포츠 이벤트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모터스포츠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드라이버와 동승하여 서킷을 체험할 수 있는 택시타임, 버스를 타고 서킷을 주행함으로써 모터스포츠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사파리 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며 아마추어 드라이버, 동호인들이 개인 자격으로도 영암 경주장을 주행할 수 있는 스포츠 드라이빙 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4) 다양한 생활 체육 행사 개최 및 도민의 휴식 공간 활용

영암 경주장이 모터스포츠 경주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의 명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인이 참여하는 서킷 마라톤(걷기) 대회, 철인 3종 경기, 인라인 스케이트 및 자전거 대회 등 각종 생활 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영암 경주장을 일반 시민의 생활

체육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영암 경주장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도민들이 산책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F1대회지원담당관 최종선, 경주장운영담당 우흥섭, 담당자 최동훈, 최환

라.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모터스포츠산업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레저행태의 변화에 따라 그 수요가 급격히 증대될 것이며, 특히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는 F1 경주대회를 통해 국내 자동차메이커들의 성능 향상 및 이미지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우리 도를 미래 신 성장산업인 모터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F1서킷을 연계한 패키징 차부품의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F1서킷 인근 113,800㎡ 부지에 F1서킷을 활용하여 기존기술에 고성능·고효율화 및 신소재 등을 적용하고 중단기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우수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프리미엄급 고급 브랜드부품에 대한 연구개발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07년 12월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추진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 9월 지식경제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국내 튜닝산업에 대한 법적규제와 음성화,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시행의 불확실성 및 R&D과제와 자동차산업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사유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F1지원법('09. 10. 9) 제정과 호남 광역권 전략산업에 동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09. 12. 15)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전문가의 기획연구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재기획하고 2011년 6월 30일에 20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2011년 10월 28일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 현재 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대 분야 11개 R&D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자동차부품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프리미엄 자동차부품 연구개발센터는 국제 공인 F1 서킷과 연계하여 자동차부품의 극한 성능 시험/평가 시설로 활용,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해외 시험 비용을 절약하고 국내 시험/평가 기술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 시장(프리미엄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시장) 개척을 위해 품질 인증을 위한 시험 평가 기반 시설로서 프리미엄 부품산업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既 구축된 F1 서킷을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의 핵심인프라로 활용하고, 고품질/고성능 자동차부품의 Test-bed로 활용하여 프리미엄 부품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며,

전량 해외에서 수행되는 국제 자동차부품업체 개발 프리미엄 부품의 시험평가를 국내의 서킷에서 진행하여 비용 부담과 시간을 절약하는 국가 기술력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부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기업유치 등 국부를 증대시키는 과정으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1 대회를 비롯한 F3-Super GT·Motor GP 등 다양한 국내외 대회에 연평균 688천명으로 추정되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F1 대회 개최를 계기로 미성숙 잠재시장인 국내 모터스포츠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F1 대회 등으로 창출될 유동인구의 고급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고, 국내 모터스포츠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F1 경주장 인근에 고품격 배후도시인 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를 조성하고자 했다.

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란 모터스포츠를 중심으로 관광, 레저, 교육, 산업, 정주 등 여러 기능이 복합된 도시로서 4.3km²의 F1 부지(삼포지구)에 기존 F1 서킷을 중심으로 중심상업지구, 관광·엔터테인먼트, 연관 산업 단지, 주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시장성, 실현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F1 부지의 투자유치 매력요소를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구별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호텔, 리조트, 쇼핑몰, 카지노, 테마파크, 자동차 R&D 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 고급 소비 및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격 복합레저도시인 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가 조성되면 F1 경주 관람 등으로 모여든 관광객의 고급소비수요를 만족하고, 모터스포츠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도시과 과 장 안상현,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담당자 김범상